

기고



최 기 정
/강진소방서장

추워진 날씨에 형형색색의 단풍이 떨어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리고 있다. 가을이 지나 옷깃을 여미는 겨울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다.

겨울철에는 전기장판과 난로, 히터 등 각종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그만큼 가정 및 직장 등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한다.

전남소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 발생 건수는 연평균 759건에 사망 92명을 포함해 인명피해 28.8명, 재산피해는 137억 원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62.6%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전기적 요인 17.9%, 기계적 요인 8.2%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에서 보듯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소방관서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화재예방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올해로 불조심 강조의 달 76회를 맞고 있으며, 민, 관이 합동으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및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안전한 겨울철을 보내기 위한 안전 수칙은 먼저 겨울철 3대 난방용품인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의 안전한 사용이 중요하다.

난방용품은 구입 시 성능이나 안정성이 법규에 적합한 규격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난방용품을 사용하기 전 전선이나 전원부 주의

에 먼지가 끼어 있는지 확인하고, 파손 또는 피복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불이나 소파 등 난방기 주변에 타기 쉬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난방용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은 반드시 고장여부를 확인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전열기구는 전력 소모가 많으므로 문어발식 콘센트 연결은 과부하를 발생시켜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용량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

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소화기는 총마다 1개씩 설치하여, 화재 초기에 작은 불은 소화기를 사용해 끄도록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로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하여 큰 소리로 비상벨을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이다.

화재나 응급 상황 등 재난 발생 시에는 1분 1초가 소중하다.

화재의 경우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5분 이내이며 시간이 늦춰질수록 대형 화재로 번질 확률이 높아진다.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는 너무나 중요하다.

앞서 말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다.

하지만 ‘설마’라는 생각이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화재예방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화재는 나와 내 가족, 이웃을 한순간에 앗을 수도 있다.

내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화재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항상 생활 속에서 주변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대피방법 숙지해야



한 선 근
/고흥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

추운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등 화기취급이 늘어나면서 매스컴을 통해 주택, 공장 등 다양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하곤 한다.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 화재 예방과 화재 시 대피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이나 여러 사람이 붐비는 영화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화재 예방과 대피 방법 숙지는 더욱 중요하다.

전통시장은 건물 구조적인 한계와

복잡한 미로식 통로 구조로 노후화된 전기배선과 가스시설, 각종 조리·난방기구의 무분별한 사용·관리,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시장 내 좌판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화재 발생과 진압에 매우 취약하다.

화재 예방·대피 방법으로는 ▲전열기구 장시간 사용 금지 ▲1점포 1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노후화된 전선과 콘센트 점검 ▲평상시 자체 점검 및 소방시설 사용법 숙지 ▲소방차 진입로에 적재물 방치 금지 ▲화재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119 신고 등이다.

영화관은 어두운 조명과 창문이 없는 구조와 방음벽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며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영화관 화재 예방·대피 방법으로는 ▲정기적인 대피 훈련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숙지 ▲소방시설 사전 관리 및 사용 방법 숙지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관계자 화재 예방 교육 철저 등이 있다.

화재 발생 시 관람객들은 영화 상

영 전 피난 안내 영상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봐야 하며 피난로를 알아둬야 한다.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하며 유도등을 따라 복도와 계단을 이용해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급할수록 차분하게 119 + 통화버튼을 누르세요



문 종 명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순간적으로 발생한 눈앞의 상황에 사람들은 누구나 당황하게 되어있다. 더욱이 제3자가 아닌 당사자 또는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당황해 통화버튼을 누르지 못하거나 통화를 걸어도 내용 전달을 잘 못할 수도 있다.

오늘은 119신고의 다양한 방법과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119버튼과 통화버튼

이 밖에 도다종이 이용하는 업소를 이용할 때는 미리 대피로를 숙지하고 소화기 등의 위치를 확인해 만일에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 단 한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는 따뜻한 겨울을 소원해 본다.

을 누르지 못해 발생하는 상황, 신고 시 소방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처리하는지에 대해 안내하려 한다.

대부분 음성통화만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휴대폰으로 119신고하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음성통화로 신고하는 방법이다. 핸드폰에 119를 누른 후 통화버튼을 누르면 쉽고 빠르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일 것이나, 통화에서 119를 누르고 급한 마음에 통화(전화기)버튼을 누르지 못하여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통화버튼까지 침착하게 눌러주어야 핸드폰의 위치조회로 현장에 출동할 수가 있으니, 꼭 이점 유의하도록 하자.

둘째 영상통화로 신고하는 방법이다.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거나 또는 사고로 대화를 하지 못할 경우, 너무

당황하여 상황을 전달할 수 없을 경우 등등 영상통화로 119에 신고해 현장 상황을 화면에 전송하도록 하자.

화재나 교통사고 등 영상통화가 아닌 음성통화로 신고하는게 더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환자가 호흡과 맥박이 없어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는 영상통화로 신고해 현장상황을 전달 및 조치방법을 직접 눈으로 전달받는데 효율적인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음성통화가 아닌 상황을 파악한 후 영상통화로 신고하도록 하자.

셋째, 문자로 신고하는 방법이다. 이 건 현장 상황의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이 신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운전 중 하고 가는데 주택가에

심한 연기가 발생할 경우, 주소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나는 건지, 아니면 보일러 등으로 연기가 발생하는 건지 신고하기 애매한 상황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사진을 찍어 소방서에 문자로 신고를 하자.

문자로 현장 상황의 사진과 내용을 신고하면 소방서에서는 연기발생 위치와 연기의 색상 등 현장상황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가 있으며, 신속한 현장대처가 가능하다.

넷째 119 누리집 신고 방법 www.119.go.kr이다. 위의 4가지 방법을 참고해 119신고 상황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임간) 등록번호 광주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na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광 고 국 (062) 363-0005	정 · 경 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취재본부 (062) 943-0140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푸른언론의 길을지향하는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독자의견 •TEL : (062) 363-8800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namaeil.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

지국안내

총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등.....225-0651
광 천.....374-2120
금 정.....374-3713
하 호.....376-7153
생 촌.....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운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운.....525-8994
두 암.....266-1920
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 정.....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담 양...010-3602-3550
곡 성...010-2632-4504
구 레...010-8597-0053
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3610-9153
강 진...010-3775-2369
장 성...010-3610-7824
무 안...010-9271-8517
여 수...010-8587-2288

함 평...010-3095-5842
영 암...010-4604-3742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고 흥...010-4644-8383